



신기술 신제품 경연장 드루파2008 눈앞

디지털인쇄 약진속 수준높은 행사 풍성

신제품과 신기술을 대거 선보이며 향후 인쇄업계의 동향을 짐작할 수 있는 드루파 2008이 오는 5월 29일부터 6월 11일까지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개최된다. 전 세계 1800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하고 17만㎡ 이상의 전시면적에 40만 이상의 방문객과 3500여명의 언론인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호 부장kshulk@print.or.kr · 박성권 기자vovsys@print.or.kr>



이번 드루파에서는 전시회의 주최사인 메세 뒤셀도르프의 공언대로 디지털 부문의 약진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디지털 솔루션 공급업체들이 1만㎡의 전시영역에 준비하는 디지털 주제관은 드루파2004와 비교해 보면 크게 확장되었다. 전시장 북쪽에 위치한 2개의 새로운 홀인 8a, 8b가 이 분야의 중심이 될 예정이다. 인접한 5번 홀과 9번 홀은 디지털 솔루션 공급업체(아그파, 코닥, 엡손, 후지필름, 코니카미놀타, 오세프린팅시스템, 제록스 등)를 중심으로 꾸러지게 된다.

국내업체로는 커포텍(Hall 11 B69), 디지아이(Hall 7a C11), 영신기계(Hall 10 D40), 지엠피(Hall 11 E7), 대호기계(Hall 11 E77), 국제기계(Hall 10 E20), 타코플러스(Hall 13 A15), 성안기계(Hall 13 B39)등이 드루파 참가를 통해 세계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술 및 제품에 대해 강연을 할 예정이다. 각각의 컴파스 세션은 현재 인쇄산업의 동향에 대해 각각 다른 주제를 가지고 진행된다.

하이라이트투어는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접하고자 하는 관람객들을 위해 준비되었다.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고 정보를 접하면서 보다 알찬 사업적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가이드투어는 전시업체의 공간에서 방문객들이 사업 상담을 위한 전문가들과 접촉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10가지 개별 투어로 진행되며 독일어와 영어는 매일 제공되고 스페인어, 프랑스어, 중국어도 지원된다. 프린트 바이어와 마케팅 담당자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드루파큐브는 콩그레스센터 남쪽의 라인강 쪽에 설치된다. 드루파큐브의 모든 프로그램은 커뮤니케이션스, 마케팅, 디자인 협회들과 협동으로 드루파 타깃 그



드루파 2008의 드루파이노베이션파크(DIP)와 컴파스 세션이 특히 주목되며, 드루파이노베이션파크에는 8개 분야 160개 업체가 참여한다.

한편, 이번 전시회 기간에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각종 행사들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 것으로 보인다. 드루파이노베이션파크(DIP : Drupa Innovation Parc)는 혁신적인 새로운 기술을 위한 포럼을 제공한다. 3300㎡ 이상의 전시공간에서 8개 분야 160개의 전시업체가 참여하는 DIP는 새롭고 혁신적인 디지털 공급업체들이 프린트 및 미디어 산업 영역에서 젊고 새로운 솔루션을 선보임으로써 가장 주목받는 전시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독일인쇄&미디어산업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컴파스 세션도 눈길을 끈다. 이곳에서는 국제적인 전문가들이 현재의 기술 동향과 기계, 소프트웨어, 워크플로, 제조 기

를 위해 새롭게 부각되는 이슈들을 인포테인먼트 형식을 빌어 다루게 된다.

드루파2008은 공식 홈페이지(www.drupa.com)를 통한 다양한 편의 서비스도 빼놓을 수 없다. 드루파 서치(search) 엔진을 통해 타깃/세부 전시업체 및 제품들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이를 통해 검색 업체의 전시회 홀 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전시업체의 정확한 위치 및 스탠드 번호는 'My Organizer'를 통해 편리하게 관리되며 'My Catalog' 기능을 통해서도 사용자들이 전시업체의 프로파일, 제품 설명서, 카탈로그 등을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matchmaking'도 드루파2008에 맞춰 새 기능의 버전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고모리 코퍼레이션

리스론 LSX-40 등 인쇄기계 8대 출품



- LSX-40(좌) 작업시간 35% 단축
- LSX-29(우) 인쇄 최대크기 585×740으로 커져

고모리 코퍼레이션은 드루파2008에서 인쇄업체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를 5가지를 분류하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 - '5 Solutions'를 제안할 예정이다. 고모리 부스에서는 매일 30회 이상의 시연을 실시해 고모리가 제창하는 고객의 기대를 넘는 '감동'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고모리가 가지 놀라운 기술력을 업계에 선보일 계획이다.

고모리가 출전시키는 전 기종은 생산성 향상과 원패스 부가가치화의 2가지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매엽기 및 윤전기 도합 8대가 출전되며 여기 서 눈여겨 볼 것은 LSX-40 기종과, LSX-29기종이다.

LSX-40

전략적인 개발을 통해 탄생한 리스론 SX40은 LS40시리즈를 대표하게 될 차세대 인쇄기기로 국전 시장의 새로운 기술 표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리스론 SX40은 최고인쇄속도 18,000sph의 가동이 가능하다. 연달아서 인쇄판이 빠지는 방식으로 판교환 속도가 더 빨라진 신형 전자동 판교환장치(Full-APC)는 작업 전환속도 단축에 기여하기 때문에 바쁜 인쇄사가 다양한 부수의 인쇄 작업을 다룰 수 있게 한다.

리스론 SX40은 6개의 판을 2분 이내에 교환한다. 드루파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고모리 신형 KHS-AI가 LSX40에 탑재되어 작업전환시간을 35% 단축함으로써 빠른 인쇄를 지원한다. 정확히 말하자면 한 작업이 끝나는 시점에서 다음 작업의 본인쇄에 들어가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단지 6분25초이다.

신형 리스론 SX40의 휘더는 더 빨라진 기계의 인쇄속도와 KHS-AI의 빠른 본인쇄 도달에 최적화 되었다. 기존 인쇄기의 휘더보드에 있는 종이누름 휠을 사용하지 않으며 인쇄기와 독립된 모터로 구동된다. 때문에 1번 유닛에 종이가 닿기까지 전기적 조정이 가능하여 최대

인쇄속도로 인쇄기를 가속시킬 때 기계속도에 맞추는 제어가 가능하다.

코터, 드라이어가 장착되고 유지보수 공간을 가져야 하는 배지부의 높이가 높아져 졌다. 또 진공장치를 탑재하고, 종이가 평평한 상태로 배지될 수 있도록 재설계되었다.

배지부를 이렇게 설계, 변경함으로써 고속 인쇄속도에서 추가적인 종이제어가 가능하고 길어진 배지부를 통해 인쇄물 건조시간이 길어진다. 배지부에 다양한 속도의 블로어도 추가되었다. 리스론 SX40은 시중에 공개되기도 전에 환경 BG 인증을 획득했다.

LSX-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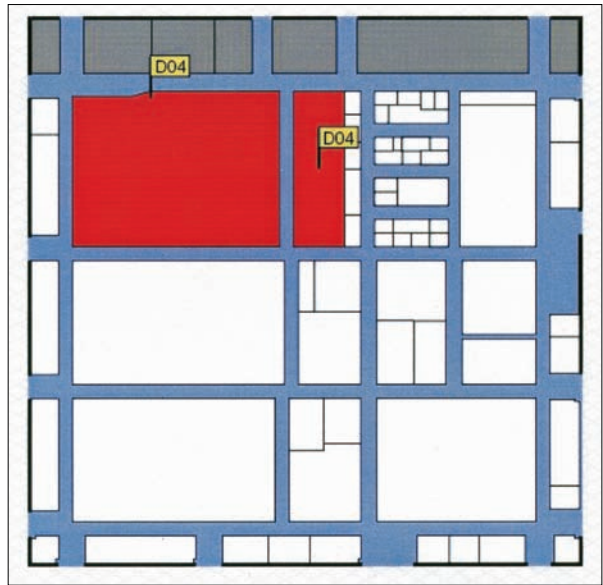
이 모델은 기존 LS-29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킨 기종으로 최대종이사이즈 610×750mm에 대응하며, 최대 인쇄사이즈는 585×740mm로 기존의 T3절 인쇄기 LS29 모델보다 약 12.5%가 더 커져 일부 시장에서만 통용되어 오던 표준 사이즈도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더 커진 인쇄영역은 라벨, 작은 상자, 약포장지, 책포장용 종이상자, DVD, CD커버와 같이 한 번에 같은 화상을 여러 개 배치하는 작업시에 유용하다.

인라인 콜드호일이 장착된 리스론 SX29의 속도는 종래의 비용이 비싸고 속도가 느린 오프라인 핫스탬프에 비해 빠르다. 투명한 인쇄나 망으로 이루어진 이미지도 금박으로 표현할 수 있어 디자인할 때에 금박인쇄를 적용하는 선택의 폭이 넓다.

또 금박을 넣고자 하는 부분의 이미지를 CTP를 이용하여 일반 오프셋 인쇄판으로 소부해 사용할 수 있어 새로운 차원의 생산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인쇄하면서 동시에 금박가공이 이루어지므로 빠른 납기에 대응할 수 있다.

엠보싱 유닛은 인쇄와 별도로 가공하여 작업에 시간이 걸리는 오프라인 가공을 대체하는데, 작업준비는 빠르고 쉬우며 핀맞춤이 정확하며, 인쇄와 똑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엠보싱 가공이 완료된다.

LSX-629의 인라인 UV 드라이어와 니스 또한 고풍택 마감으로 인라인 다이컷트 유닛과 함께 더 강화된 특수 부가가치를 제공한다.



고모리 버스 - Hall 15 D04

두넷

두넷은 가시적인 생산정보를 기계측에서 제공해주는 고모리의 개방된 구조의 네트워크 시스템이며 인쇄물생산의 완벽성, 인쇄의 표준화와 기계에 기초한 칼라 매니지먼트를 보증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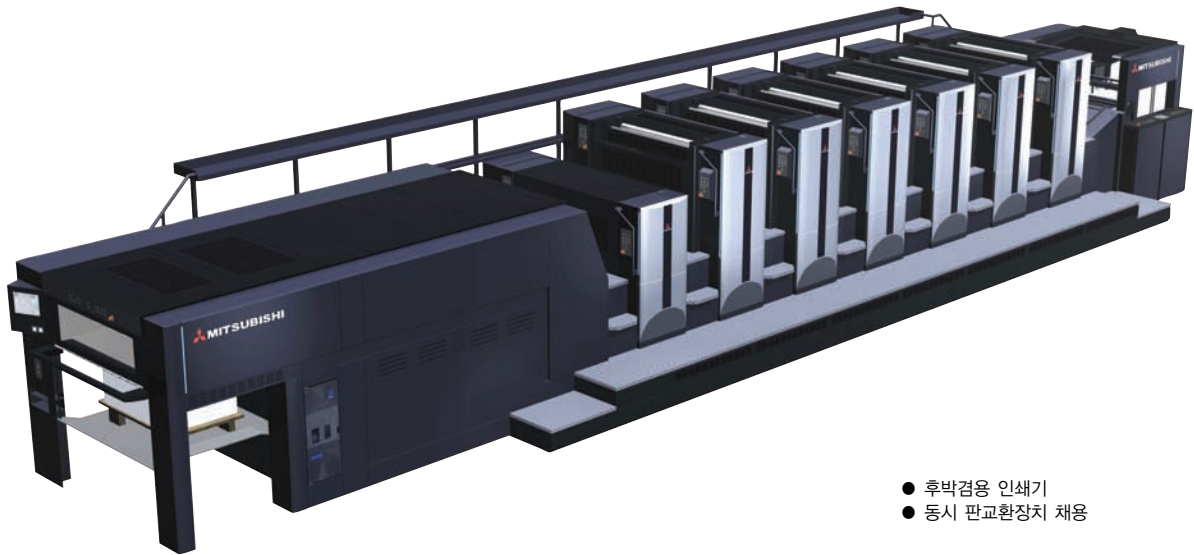
특히, 외부시스템과 인쇄기계로부터 받는 정보와 연계하므로써 두넷은 인쇄회사들이 직면한 핵심과제들 (인쇄품질, 비용삭감, 빠른 작업전환 및 친환경적인 기계 운영)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두넷 존에서 고모리는 CIP4/JDF에 기초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MIS 주도생산제어를 시연하며 고정밀도 칼라 매니지먼트 도구들을 사용하여 칼라매니지먼트를 수행하며 다른 프리프레스와 후공정 시스템장비 제조회사들과 제휴하여 작업을 행한다.

이외에도 고모리 부스에는 매엽인쇄기용 KHS-AI, 새롭게 설계한 비디오 스코프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고모리 관계자는 “부스에서는 매일 30회 이상의 시연을 실시해 고모리가 제창하는 고객의 기대를 넘는 ‘감동’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고모리가 가진 놀라운 기술력을 업계에 선보일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미쓰비시

매엽기 다이아몬드 V3000, LX3000 등 출품



- 후박겸용 인쇄기
- 동시 판교환장치 채용

다이아몬드 시리즈의 개발 테마 Net Production, Nets Profits! 를 양면기에 전개한 제품을 이번 드루파2008에 출품한다. 오프셋기에서는 '다이아몬드' 의 제2탄으로 신모델 3기종을 전시할 예정이다.

신모델 3기종은 폭넓은 인쇄용지에 대응하는 후박 겸용 인쇄기(다이아몬드 V3000 LX3000, 사진), 편면 다색 인쇄와 양면인쇄의 쌍방으로 대응하는 편면양면인쇄 겸용기(다이아몬드 V3000R), 종이를 반전하지 않고 양면을 인쇄할 수 있는 독자적인 몸통 배열을 가진 양면 인쇄 전용기(다이아몬드 V3000TP10)이다.

이번 3기종은 업계최초의 전색동시·전자동판 교환장치 '동시판교환장치' 를 각각 채용, 색 가지수에 관계없이 75초 이내의 고속·고정밀의 판 교환을 실현한다(판 교환만은 38초 이내). 또 지금까지 숙련의 기술을 필요로 한 색 조정을 간단하고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다이아몬드 컬러 네비게이터' 가 탑재 가능해,

생산성과 조작성을 큰폭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후박 겸용 인쇄기 '다이아몬드 V3000LX' 는 두께 0.04~1.0mm까지 다양한 용지에 인쇄가 가능하다. 에어 제어장치로 판지 인쇄시 굽힘이나 더러움을 방지할 수 있다.

한면·양면인쇄겸용 인쇄기 '다이아몬드 V3000R' 는 종이 흐름의 안정화로 양면 인쇄시 시간당 16,200매(편면 인쇄시의 속도와 같음)가 가능하다.

양면 인쇄 전용기 '다이아몬드 V3000TP' 는 전용 후면 인쇄유니트와 통상의 인쇄 유니트를 연결 유니트로 연결한 새로운 타입의 양면 인쇄기 탄템 퍼펙터(TP)다. 판의 표면조건이나 종이 크기, 정밀도 등 양면기 특유의 제약 조건이 적고, 다양한 두께의 종이도 인쇄가 가능하다. 또한 배지부의 개량을 통해, 시간당 1만6200매의 인쇄가 가능하다.

● 김형준 선일상사 대표이사

높은 가동률 실현하는 서비스체계 강화할 터

△ 2008 드루파 출품의 의의는 무엇입니까?

미쓰비시중공업에서는 일본에서 작년 9월에 판매를 개시한 매엽인쇄기의 신제품 다이아몬드 시리즈의 제2탄으로서 기종 전개한 신제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드루파에서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실용화한 신기술과 함께 고객의 비즈니스에 확실한 성과를 낳는 솔루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특히, 전색동시·전자동판 교환 장치는 이전 매엽기가 판을 교환할 때 유니트마다 몸통 위치를 조정해야 할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동으로 모든 인쇄 유니트 몸통 배열의 위상 맞춘 후, 판을 교환하기 때문에 75초(판 교환 뿐이라면 38초)에 교환이 가능합니다.

△ 동종 경쟁업체와의 차별화 경영전략·마케팅전략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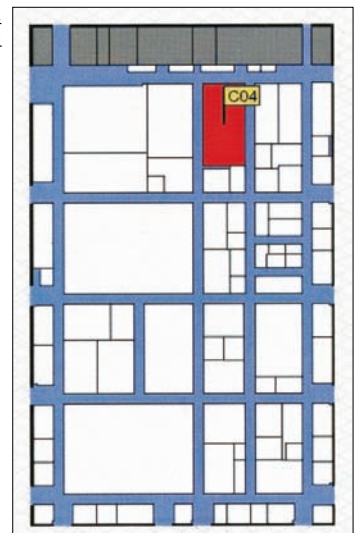
고객이 원하는 수익성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인쇄 시장의 트렌드는 다품종·소ロット인쇄의 흐름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쇄속도의 증가만이 아니고, 인쇄 준비시간을 비롯한 ‘기계가 멈추어 있는 시간 = 인쇄하고 있지 않는 시간’을 짧게 하는 일, 즉 고가동률의 실현이 정말로 인쇄인들이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고객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적인 설계 개선으로 고가동률의 실현, 고객의 고가동률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체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정지시간 단축, 준비작업의 용이, 조작의 편의성을 실현할 수 있는 기계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를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체계도 강화하여 1년이 12+1개월(1년이 13개월)이 되어 고객이 궁극적으로 이

익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미쓰비시중공업이 목표입니다. 이번 드루파에서 선보이는 다이아몬드 시리즈는 “소프트·지오메트릭”라고 하는 복유립 디자인의 사상을 적용, 복유립 디자인의 특징인 심플 & 모던한 조형을 기본으로 하면서 인간공학적인 배려를 적용, 사용의 편의성과 디자인의 양립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 JIS나 ISO등의 각종 안전 규격에의 준거는 물론, 각 파트에 설치된 LED 라이트나 음성 가이드스에 의해, 기계 상태를 알리는 기능을 탑재해, 양호한 사람과 기계의 인터페이스를 구축해, 안전성과 조작성의 향상을 꾀하고 있으며 인쇄면의 더러움 등 불량 사고나 기계의 고장 발생을 극소화하는 ‘무급유 베어링’이나 ‘급유위치의 두출과 자동 급유’, ‘습수 슬라이드분리 방식’으로서 청소를 쉽게 할 수 있는 등 불필요한 작업을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고객에게 필요한 인간적인 배려와 편의를 최우선시하는 미쓰비시의 철학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미쓰비시 부스
Hall 9 C04



스크린

트루 프레스젯 520 등 고품질인쇄 실현



- 다양한 형태의 가변인쇄에 적용
- 분당 840페이지 인쇄 가능

스크린(다이니폰스크린)은 이번 드루파2008을 통해 ‘인쇄의 미래 창조’라는 테마로 고객사들이 새로운 인쇄산업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필요한 디지털 솔루션들을 집중 소개한다.

드루파2008을 통해 트루프레스520를 비롯해 트루프레스 344, 트루프레스 2500UV, 그리고 트루프레스 650UV 등을 선보이며 트루프레스 520의 경우 이미 유럽시장에서는 인정받고 있는 디지털 장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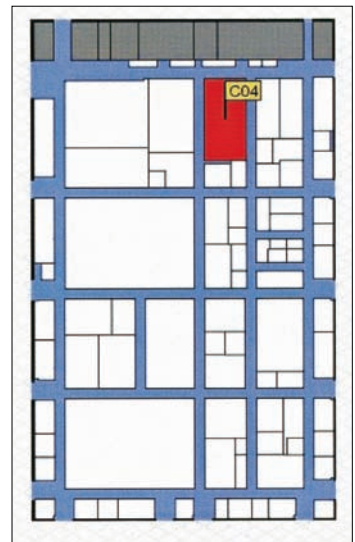
트루프레스 520은 고객 개개인에 맞춘 고부가가치 인쇄물,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퍼스널 대응의 카탈로그, 다이렉트 메일(DM), 풀 컬러 청구명세서 등 다양한 형태의 가변인쇄가 가능하다. 분당 약 840 페이지의 고속인쇄가 가능한 트루프레스 520은 ‘1:1 마케팅’과 ‘초단납기’이라고 하는 고객의 두 가지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는 시스템이 될 전망이다.

트루프레스344는 A3 사이즈의 4색 디지털 오프셋 인쇄기로서, 최신의 자동화 시스템과 TrueFit Advance를 통한 인쇄 품질관리, 그리고 최신의 혁신적인 이미징

시스템과 판재 기술을 집약시킨 디지털 인쇄기다. 최신의 친환경적 무현상판을 사용하며, 몰드(MALD, Multi Array Laser Diode)이미징 헤드를 장착함으로써 고품질 인쇄를 재현할 수 있다.

트루프레스344는 일반 오프셋용 잉크와 용지를 사용함으로써 러닝 코스트가 매우 저렴하며, 숙련된 노하우 없이도 손쉽게 조작이 가능하다는 게 최대 장점이다. 최대해상도는 2400dpi이며, 4색 단면인쇄 기준으로 시간당 최대 7천매의 높은 생산성을 자랑한다.

스크린 부스 - Hall 8B A61



전익성 다이니폰스크린 대표이사

시대 흐름 맞춰 POD장비 개발에 박차

△ 2008드루파 수출품의 의의는 무엇입니까.

스크린(다이니폰스크린)은 이번 드루파2008을 통해 '인쇄의 미래 창조'라는 테마로 고객사들이 새로운 인쇄산업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필요한 디지털 솔루션들을 집중 소개할 예정입니다. 그 동안 인쇄산업에 있어 프리프레스 솔루션 공급업체로 이미지를 다져왔던 스크린은 이번 드루파2008을 계기로 디지털 온디맨드 마켓을 위한 솔루션 공급업체로 이미지 변신에 나선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스크린은 이런 산업적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인쇄산업이 전자미디어에 보완적이며 생산 공정에 있어 친환경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산업으로 변화해 나가는데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동참하기로 사업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 동종 경쟁업체와의 차별화 경영전략·마케팅전략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스크린은 드루파2008을 통해 인쇄의 미래를 창조한다는 것은 단순히 비용을 절감한다든가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인쇄업체들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열어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크린은 미래의 인쇄는 POD인쇄이며 이는 인쇄의 근본적인 변화를 뜻하는 것으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이미지 기술을 개발해 왔던 경륜을 토대로 이제 사인과 디스플레이, 다이렉트메일과 트랜스프로모, 신문, 포장, 상업 및 산업용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강력한 POD장비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워크플로의 경우, 기존의 트루플로우넷(Trueflownet)을 POD솔루션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보다 확



대, 강화하였는데 하나의 컨셉으로 모든 미디어에 출력할 수 있도록 디자인 한 것입니다.

스크린의 워크플로 솔루션 전략은 하나의 단일 솔루션으로 가변데이터를 다룰 수 있으며 수량만으로 언제 어디서 어떤 장비든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통해 노동력을 절감하고 기존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보안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CTP 워크플로로부터 하이브리드 워크플로로 확대, 강화되는 것이며 이 워크플로는 HP인디고와 제록스, 캐논, 코니카미놀타 등 타사의 디지털 장비에도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개방형 솔루션이 될 것입니다.

스크린이 보유한 이미지세터나 CTP, 그리고 PCB 검색기술 등에서 그 기술력을 이전한 잉크젯 기술이 적용된 제품 또한 이번 드루파2008을 통해 눈여겨 봐야 할 제품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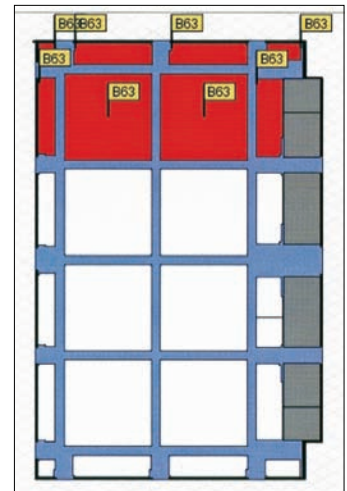
아그파

아발론 N 시리즈 드루파에 첫 선



- 다양한 크기의 판 사용가능
- 자동화정도 선택 가능

아그파 부스 - Hall 8A B63



아그파그래픽스는 드루파 2008 전시회에 새로운 버전의 CTP인 아발론 N시리즈를 출시한다. 아발론 N 썬덜 CTP는 8up 사이즈에서 VLF사이즈까지 다양한 크기의 판을 사용할 수 있다.

아발론 N은 판 사이즈와 생산 속도에 따라 다양한 모델을 선택할 수 있으며, 8up 시리즈는 최대 1160×940mm의 판 사이즈를 지원하고 사양에 따라 시간당 최대 50장까지 생산이 가능하다.

50장의 생산이 가능한 아발론8 70XT모델은 새로운 GLV 이미징 기술을 기반으로 한 1024빔을 탑재하고 있다.

VLF(Very Large Format)사이즈는 아발론N16, 아발론24, 아발론 N36 등의 세 모델을 선보이며, N16모델에는 1470×1154mm, N24모델에는 1750×1400mm, N36모델은 2100×1600mm의 플레이트 사이즈를 지원한다.

이 세가지 모델 모두는 내장편치를 지원하며, 고객의

요구 정도에 따라 전자동 로딩 시스템에서 수동 로딩 시스템에 까지 다양한 자동화 정도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이번엔 새로 선보이는 아발론 N40, N48 모델은 새로운 80~96페이지 운전기를 위해 특별히 고안된 것으로 연내 판매될 예정이다.

아그파 CTP 부문 마케팅 관계자는 새로운 아발론 N시리즈는 기존 아발론 시리즈의 성공을 재확인 시키면서 고객이 원하는 최고 수준의 품질, 안정성 및 효율성을 제공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시장에서 가장 혁신적인 솔루션인 아그파의 아포지 X와 디지털판재 및 수준 높은 서비스의 지원을 통해 아그파의 고객들은 CTP시장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파트너를 선택했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순기 아그파코리아 대표이사

혁신적인 제품, 솔루션으로 고객에 부응할 것

△ 2008드루파 제품의 의의는 무엇입니까.

아그파 그래픽스는 2008 드루파에서 상업용 인쇄, 신문사용 인쇄, 팩키지 인쇄, 사인 및 디스플레이 인쇄용 장비 및 소모품 다양한 분야에서 신제품을 출시하고 데모를 선보이게 됩니다.

아그파 그래픽스는 현재 그래픽커뮤니케이션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아그파의 기술적인 우위와 함께 이번 올해 드루파 전시회에서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산업용UV인크젯 솔루션 제품군도 선보이면서 아그파의 미래의 로드맵을 선보이게 될 것입니다.

△ 동종 경쟁업체와의 차별화 경영전략·마케팅전략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아그파의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 및 솔루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산성과 컨트라스트가 더욱 향상된 아주라 TS 모델을 선보이고 세척 유닛시스템을 더욱 보강해 무현상 관제에 있어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신기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나푸르나 XLS는 새롭게 추가되는 아그파의 UV프린터군의 와이드 포맷 제품군으로 스피드와 제품의 인쇄품질 사이에서 고민했던 고객들을 겨냥한 전략적인 제품으로 속도와 생산성을 둘 다 고려한 균형적인 제품군입니다.

또한 아그파는 아포지 미디어라는 콘텐츠의 통합과 매니지먼트를 위한 토탈 솔루션을 선보이게 됩니다. 부가적인 정보는 현재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우리부스를 방문하는 고객여러분께 여러분의 엔터프라이즈의 성공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특히 아그파코리아(주)는 한국에서 오시는 참관단을 위



해 한국직원을 전시기간 내내 배치해 두고 있으며 데모 예약을 하시면 영어를 못하더라도 한국 직원의 지원을 받아 데모를 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국어 직접 지원 프로그램을 지난 IGAS에서 아그파코리아가 한국인 독립부스를 마련 처음으로 그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이는 긍정적인 반향을 불러 일으킨 바 있습니다.

먼 타국에서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술을 실제 경험하고 궁금한 메커니즘을 질문 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꼭 아그파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세

베리오 6250 등 14대의 인쇄기 제품



- 한번에 최대 1만3800매를 로드
- 싱글패스 양면 인쇄 가능

오세(www.oce.com)는 오세만의 제미니(Gemini) 기술을 통해 분당 250매(A4 기준)의 즉시 양면 프린팅 및 뛰어난 인쇄품질을 자랑하는 날장지 프린터 베리오프린트6250과 디지털 출판물을 위한 듀플렉스 인쇄방식의 풀컬러 연속지 프린터인 컬러스트림 10000, 다양한 고객의 모든 요구 사항을 맞춰줄 수 있는 고속, 고성능의 연속지 프린터 패밀리 베리오스트림 8000, 뛰어난 품질과 생산성을 제공하는 디지털 잉크젯 방식의 풀컬러 연속지 프린터인 제트스트림 등을 출품한다.

주력 제품인 베리오프린트6250은 오버 사이즈 12.6×19.2를 포함하여 12개의 입력 장치 중 어느 곳에서나 거의 모든 종류의 미디어(타입과 크기)에 출력할 수 있다. 지원되는 용지는 커스텀(custom) 사이즈와 코팅된 미디어, 양면 탭, 삽지, 사진 인쇄용지 등이다.

베리오프린트6250은 큰 용지 사이즈를 위해 업계에서 가장 큰 용지 입력/출력 용량을 갖고 있다. 한 번에 최대 1만3800매를 걸 수 있으며 3시간 이상 계속 출력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워크플로의 수정 없이, 추가적인 서버 없이 제록스 디지패스(DigiPath)와 프리플로(free flow) 사용자가 새로운 주변장치를 컴퓨터에 장착했을 때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도 컴퓨터가 그 장치를 인식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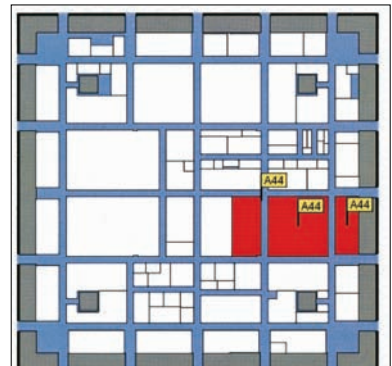
있는 능력이 호환성으로 한결 같은 프로덕션을 제공한다. 따라서 모든 환경에서 논스톱 생산을 위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IT 자원 대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 제트스트림 시스템은 업계 표준인 600×600dpi 해상도로 최고 품질의 출력물을 제공한다. 제트스트림 시리즈는 제트스트림 1100 싱글 엔진과 제트스트림 2200 트윈 엔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시스템 모두 과거의 생산주기와 최대의 생산 운영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성능을 지원한다. 제트스트림 1100 시스템은 2up 단면 포맷으로 최대 분당 A4 1026 페이지를 전공정 컬러출력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2엔진의 제트스트림 2200 시스템은 2up 양면 포맷으로 최대 분당 A4 2052 페이지를 생산할 수 있다.

오세의 부스는 Hall 6 A44이다.

오세 부스 - Hall 6 A44



로쿠스 반 이페렌 오세 대표

글로벌 리더로서의 오세 위치 재확인

△ 2008 드루파 출품의 의미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오세는 크게 4가지 세그먼트에서 오세의 혁신적인 기술 소개 및 이를 통한 고객 비즈니스 가치 창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 네 가지는 바로 디지털 출판/인쇄, 컬러를 통한 홍보, 맞춤형 인쇄 그리고 테크니컬 문서 분야입니다.

△ 2008 드루파 전시회에서 마케팅 전략은 무엇입니까?

2004년 드루파 이후로 디지털 프린팅 시장은 굉장히 빨리 진화하고 있습니다. 기존 오프셋프린팅과 디지털 프린팅이 서로의 영역을 조금씩 넘나드는 시장 상황에서 오세는 오프셋 같은 'look and Feel' 을 보여줄 수 있는 기술적 발전 도모 및 가변 데이터 처리나 소량 다품종 처리 능력 등에서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디지털 프린팅의 이점을 오프셋의 워크플로 형태와 결합하여야 해당 시장을 선도적으로 주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2008 드루파 전시회가 국내시장 및 해외시장에서 끼칠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요즘같이 정보의 소통이 쉽고 빠르게 전달되는 세상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행사에서 보여지는 제품 및 솔루션 등을 기존 고객들에게 신선한 아이디어 및 사업기회를 제공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세 역시 세계적인 인쇄업계의 리더로 130여년의 역사가 보여주듯 끊임없는 혁신 및 고객 위주의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개발한 제품들을 이번 전시회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좀 더 많은 나라의 고객들에게 오세라는 회사를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 앞으로의 기술 개발 및 계획하는 사업이 있는지요?

오세는 매년 전체 매출(2007년 기준 약 4조원)의 7% 이상을 항상 R&D 분야에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오세는 지속적으로 시장조사를 통해 고객이 원하거나 혹은 오세가 만들어 갈 시장에 맞는 제품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간은 컬러, 워크플로, 맞춤형 정보, 홍보 및 기술문서 등의 출력분야에 맞춰 제품 개발 및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 향후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는 국내 인쇄산업의 전망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오세 한국 총판인 SK네트웍스에서 바라보는 인쇄 산업의 전망은 트랜스프로모입니다. 이미 CopyShop, 경인쇄 시장을 시작으로 디지털프린팅으로의 전환은 시도되었습니다. 향후 국내 시장은 고전적인 인쇄 시장과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디지털 프린팅 인쇄 산업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세에서는 "트랜스프로모"라는 마케팅 슬로건을 앞으로의 방향으로 설정합니다. 프린터에서 인쇄의 모든 부분을 수용하며 디지털 컴퓨팅 기능을 접목하여 인쇄와 프린팅 시장을 동시에 커버하는 콘셉트의 제품으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후지제록스

제록스 650/1300 Continuous Feed



- 흑백연속지 디지털 인쇄시스템의 주력제품
- 분당 615매 출력

이번 전시회를 통해 첫 선을 보일 후지제록스 650/1300 컨티뉴어스 피더는 후지 제록스의 흑백 연속지 디지털 인쇄 시스템 분야의 주력 제품이다.

제록스 650/1300 컨티뉴어스 피더는 분당 615매 출력(A4 기준 1장)을 자랑하며, 일반용지와 특수용지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고 핀페드의 경우 60~160g/m², pinless의 경우 40~200 g/m²까지 사용할 수 있다.

후지제록스 490/980 컬러 컨티뉴어스 피더는 분당 900매 컬러 출력을 자랑한다(A4 기준 1장). 600dpi의 고품질 해상도를 얻을 수 있는 후지제록스 490/980 컬러 컨티뉴어스 피더는 컬러 인쇄물을 최대 월간 1200만 페이지까지 소화할 수 있어, 금융권의 고객발송용 DM 제작, 신문 등 대량 컬러 출력 작업에 적합하다.

누베라 288은 낱장용지(A4 기준 1장) 출력 속도로는 세계 최고인 분당 288매 출력이 가능한 디지털 흑백 인쇄 시스템이다. 출력 속도뿐 아니라 이미지 품질에서도 최고를 자랑한다. 분당 288매의 빠른 속도를 실행하면서도 오프셋 수준의 해상도인 4800×600dpi를 구현한다. 게다가 EA(Emulsion Aggregation) 토너를 디지털

인쇄 업계 최초로 도입해 곡선이나 작은 텍스트까지도 생생하게 구현할 수 있다. 2 대의 인쇄 엔진이 유기적으로 작동, 생산성 역시 그 어떤 시스템에 비해 뛰어나다.

누베라 288과 함께 새롭게 선보이는 제품으로 패스스루(Pass Through) 프로그래밍이 있다. 이 프로그래밍은 2 대의 인쇄 엔진 중 상황에 따라 1대를 정지해야 할 경우 인쇄용지가 정지된 엔진을 자동으로 통과, 작업 속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최대 3200매까지 용지 공급이 가능하고, 출력 후 제본 과정에 있어서도 최대 5,000매까지 쌓아 올릴 수가 있어 대형 디지털 인쇄에 필요한 요건을 갖췄다.

아이젠3는 지난 2006년 3월 출시돼 우리나라의 디지털 인쇄시장을 선도하는 제품이다. 최대 364×521mm에 달하는 큰 용지 사이즈 출력을 지원하며, 코팅지/비코팅지/표면가공지 등뿐 아니라 재생지, 타공지, OHP 필름, 라벨용지 등 다양한 특수지 처리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400개의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아이젠3는 획일적인 대량 오프셋 인쇄에서는 다룰 수 없는 1대1 마케팅이 가능하다.

배철호 한국후지제록스 Product 마케팅팀 팀장

새 형태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고객 호응 기대

△ DRUPA 2008 출품의 의의는 무엇입니까?

후지제록스는 이번 드루파 2008에서 자사의 경쟁력으로 꼽히고 있는 3가지 부문 즉, 후지제록스만의 첨단 기술력, 워크플로 솔루션, 비즈니스 개발 모델에 중점을 둔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세계 최고, 세계 최초의 첨단 제품을 한 발 앞서 시장에 제시하는 후지제록스 고유의 '기술력', 고객 특성에 따른 1:1 맞춤형 토털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의 업무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디지털 인쇄 솔루션 '프리플로'가 구현하는 '워크플로 솔루션' 그리고 후지제록스의 솔루션과 서비스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개발 모델'을 선보입니다. 이에 단순한 토털 솔루션에서 한발 나아간 차세대 솔루션 산업 토털 솔루션을 선보이는 것에 이번 전시회 참가 의의를 둘 수 있습니다. 후지제록스는 세계 최대 인쇄박람회인 드루파 2008의 성공적 참여를 통해 업계 선두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쇄 시장의 이목을 충분히 사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책 출간', '오프셋과 디지털인쇄의 상호보완성', '출력 자동화' 등 각종 인쇄 응용분야에서 유명한 9명의 전문가들의 프리젠테이션이 진행될 극장 형태의 디지털 비즈니스 세미나 존 역시 후지제록스가 심혈을 기울인 부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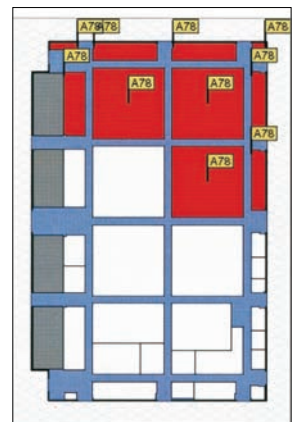
2008드루파를 통해 선보이게 될 디지털 인쇄 시스템과 통합 솔루션 도입이 이뤄지면 기업의 문서 환경 자체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력속도 등 단순히 기기의 성능에만 주목했던 예전의 환경에서 벗어나 첨단 솔루션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공존하는 차세대 문서 환경이 실현될 것입니다.

후지제록스는 다양한 성격의 기업 특성에 맞는 솔루션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업무 효율성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최적의 문서 환경 구축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입니다.

△ 후지제록스의 차별화 전략 및 전망에 대해 소개해 주시지요.

후지제록스는 이번 2008 드루파에서 새 형태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선보이게 됩니다. 청구서에 고객별 맞춤형 정보 및 광고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DM 마케팅인 트랜스프로모(Transpromo), UV 투과 시에만 문서 내용이 보이는 인쇄물을 기기에서 바로 출력할 수 있는 보안 이미징 등으로 후지제록스의 앞선 노하우가 담긴 솔루션이 적용된 최첨단 애플리케이션은 전 세계 인

제록스 부스
Hall 8B A78



코니카미놀타

월 850만장 인쇄하는 자이콘 8000



- 다양한 특수용지도 인쇄가능
- 디지털 인쇄 처음시작하는 고객에게 적합

코니카미놀타(대표 요시카즈 오타, www.konica-minolta.com)가 출품하는 자이콘 8000은 펀치그래픽스의 야심작이라고 할 수 있다.

Real 1200dpi에 4bit의 멀티 비트 기술을 채택하여 실제 4800dpi 상당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240선까지 인쇄가 가능하다. 또한 뛰어난 품질과 함께 230ppm(A4 기준)이라는 뛰어난 생산성, 그리고 850만(A4 페이지)로 디지털 인쇄기의 한계를 뛰어 넘은 제품이다. 자이콘 8000은 다른 자이콘의 장비와 마찬가지로 윤전방식을 채택하여 최대 508mm의 폭에(용지 폭 512mm) 길이는 무제한의 인쇄 영역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인쇄용지의 제어 능력이 뛰어나 40~ 350g/㎡의 용지를 허용하며, 다양한 재질의 특수 용지들도 인쇄가 가능하도록 설계 되었다. 자이콘 8000은 양면 동시 인쇄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양면 8도, 또는 양면 10도의 컬러 스테이션을 구성할 수 있어 마이크로 단위까지 정확

한 편 맞춤을 실현했다.

코니카미놀타의 LD-6500은 최상의 가격대비 성능을 자랑하는 디지털인쇄기로 디지털 인쇄를 처음 시작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장비라고 할 수 있다. 멀티 비트 기술을 이용하여 1800dpi 상당의 해상도에 최대 65ppm의 속도로 자동 양면 인쇄가(양면 인쇄 시 45ppm) 가능한 LD-6500은 새로이 개발된 디지털 하이브리드 토너를 이용하여 보다 선명하고 섬세한 인쇄가 가능하다.

또한 LD-6500은 전통적으로 컬러에 강한 코니카미놀타의 제품답게 CMS에 있어서 탁월한 기능을 제공한다. 각 객체에 대한 별도의 프로파일 적용과 고객이 쉽고 자유롭게 컬러를 프로파일을 생성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품질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차익송 한국필름 대표이사

상업인쇄의 새로운 블루오션 개척할 것

△ 2008 드루파 출품의 의미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코니카미놀타부문과 자이콘의 사업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니카미놀타는 디지털로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여 왔습니다. 이번 드루파 2008에서도 이러한 정신을 기초로 하여 다양한 인쇄 워크플로와 다양한 디지털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자이콘은 디지털 인쇄에서 상업인쇄의 품질과 생산성을 실현시켜 상업 인쇄의 대안을 제안하고, 더 나아가 고객에게 새로운 시장으로의 개척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2008 드루파 전시회에서 마케팅전략은 무엇입니까?

코니카미놀타는 그동안 소모품 회사라는 이미지를 벗고 진정한 디지털 솔루션의 강자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최상의 가격대비 성능을 가진 디지털 인쇄기를 고객 여러분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자이콘은 진정한 상업 인쇄의 대안을 제시할 것이며, 레드오션이라고 할 수 있는 기존의 상업 인쇄에서 새로운 블루오션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솔루션을 고객에게 소개할 예정입니다.

△ 2008 드루파 전시회가 국내시장 및 해외시장에서 끼칠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많은 회사들이 디지털 인쇄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의 시장에서는 더 이상 승산이 없다고 보는 고객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번 드루파 2008에서는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적합한 솔루션의 도입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앞으로의 기술개발 및 계획하는 사업이 있는지요?

코니카미놀타는 기존의 컬러에 노하우를 디지털 인쇄와 접목하여 차세대 사업목표를 디지털 인쇄로 잡고 있는 만큼 그 부분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CMS 툴이나 각종 워크플로 솔루션도 현재 개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이콘은 펀치그래픽스와 합병된 후에 엄청난 투자가 R&D(기술개발)부분에 이뤄졌으며, 현재도 여러 부분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이콘은 단순 하드웨어 개발을 넘어 어떠한 작업 환경과도 부합할 수 있는 솔루션과 보다 나은 품질에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소모품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 향후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는 국내 인쇄산업의 전망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인쇄 시장이 변화되는 것이 현실화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산업인쇄로의 진출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인쇄는 단순히 종이라는 틀을 벗어나 크로스 미디어의 성격을 가져야 경쟁력이 있을 것입니다.

코닥GCG

VL2000 등 컬러 트랜스프로모 시장 주도제품 출품



● DOD기반의 고품질 컬러 잉크젯 연속지 프린팅 솔루션

코닥그래픽커뮤니케이션스 한국지사(대표 안희균, www.kodak.com)는 이번 드루파2008에 전시되는 버사마크 VL2000이 이번 드루파를 통해 새롭게 발표하는 DOD(Drop On Demand) 기술기반의 고품질 컬러 잉크젯 연속지 프린팅 솔루션이라고 소개했다.

초고속 저비용의 하이볼륨 어플리케이션으로 A4 기준 분당 1,026페이지를 인쇄할 수 있으며 월간 1~5백만 페이지 인쇄 물량에서 최적의 총 소유비용을 구현할 수 있다. 사용고객의 요구사항에 맞춰 싱글엔진 1up 양면 인쇄에서 듀얼 엔진 2up 양면 인쇄로 시스템 확장이 가능하다. 600×600dpi 해상도로 풍부한 색감 재현이 장점으로 채무회계 표나 신용카드 청구서, 원격통신 송장 등의 회전식 거래내역서 등의 상업 인쇄에서 디지털 컬러 인쇄 물량을 빠른 작업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다양한 기기가 있는 생산 환경을 위한 통합 워크플로를 활용하여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쉬운 시스템으로 데이터센터에

서 컬러 트랜스프로모 시장을 주도할 제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디지털마스터 EX150 디지털 생산 시스템은 A4 기준 분당 150페이지를 인쇄하는 흑백 디지털 프로덕션 시스템이다. 600dpi LED 이미징 기술기반으로 와이드 그레이스케일 토닝을 통해 탁월한 하프톤을 구현하여 오프셋 수준의 인쇄 품질로 정평이 나있는 제품이다. 용지 이송 경로의 최소화 및 내부 에어시스템으로 경쟁사 대비 높은 업타임 및 월간 5백만 페이지를 인쇄할 수 있는 제품으로 상업인쇄시장 및 데이터센터 시장을 타깃으로 한다.

새로운 프린트 프로덕션 소프트웨어는 JDF를 지원함으로써 생산성과 신뢰성을 향상시켜 주며, 새로운 워크프리뷰 매니저 기능은 인쇄작업의 정확도를 높이고 에러율을 낮춘다.

안희균 코닥그래픽커뮤니케이션스 한국지사 대표이사

인쇄 전 분야에 강력한 인상 심을 것

△ 2008 드루파 제품의 의미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2008년 드루파는 코닥, 코닥폴리크롬그래픽스, 크레오, 코닥머사마크, 벡스프레스, 코닥엔캐드, 사이텍스, 리얼타임 프루프닷컴 등 인쇄 전 분야 최고의 제품들을 코닥이라는 강력한 단일 브랜드로 선보이는 첫 번째 드루파입니다. 코닥은 상업인쇄, 신문인쇄, 출판, 패키징 및 가변데이터 인쇄 등 다양한 용도와 디지털, 잉크젯, 오프셋과 플렉소 등 다양한 인쇄 분야에 최고의 신뢰도와 품질을 자랑합니다. 이번 드루파 제품으로 뛰어난 제품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생산 공급하는 코닥의 높아진 위상과 역할을 확고히 하고 고객과 협력사에게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창출의 장이 되는 동시에 코닥과 함께 성장하게 되는 기회가 될 것 입니다.



△ 2008드루파에서의 마케팅전략은 무엇입니까?

상업인쇄, 신문인쇄, 출판, 패키징 및 가변데이터 인쇄 등 인쇄 전 분야를 통합 관리하는 코닥의 강력한 인쇄 통합생산 운영관리 소프트웨어인 유니파이드(Unified) 워크플로와 디지털인쇄기와 CTP를 비롯한 다양한 관련 소모품 등 코닥의 최신 기술과 제품의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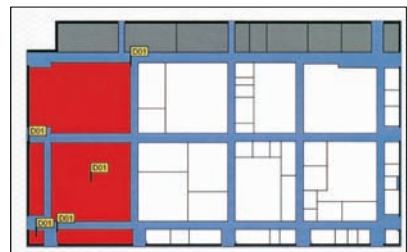
루파보다 더욱 진일보한 인쇄와 디지털의 결합과 가속화를 앞당길 것으로 봅니다.

드루파 이후에도 코닥은 언제나 고객과 고객의 필요를 최우선의 가치로 여겨왔으며 완전한 고객 맞춤형 프린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저희 영업팀과 제휴총판사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번 드루파에서는 상업인쇄, 출판, 포장, 다양한 데이터의 출력에 이르기 까지 인쇄산업의 전 분야에서 꼭 필요한 패키지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 2008 드루파 전시회가 국내시장 및 해외시장에서 끼칠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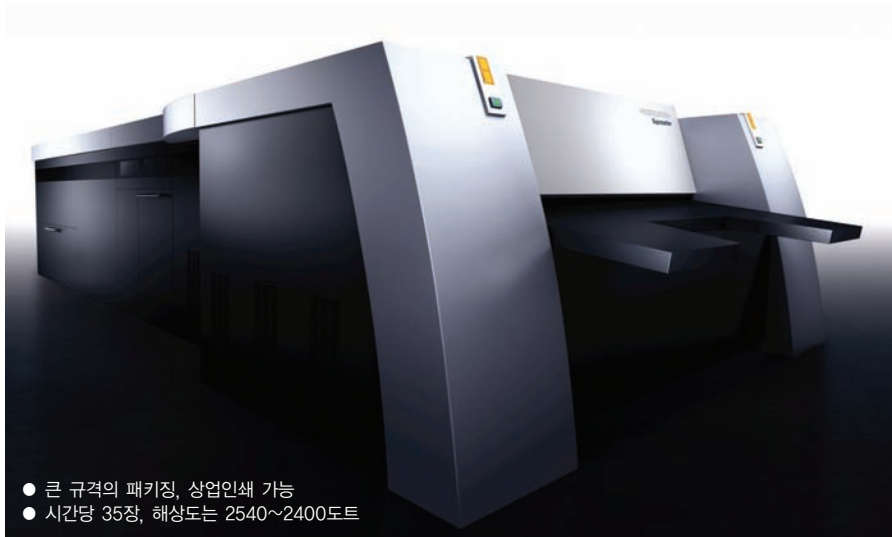
2008 드루파를 통하여 코닥은 국내외에서 필름회사로서의 강한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인쇄 종합솔루션 회사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여 인쇄 전 분야에서는 2004 드

코닥 부스
Hall 5 D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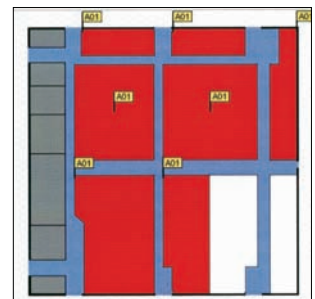


한국하이텔베르그

프리넥 프레스 센터 및 수프라세터 제품



하이텔베르그의 부스는 Hall 1 A01이다.



한국하이텔베르그(대표 김범식, www.kr.heidelberg.com)는 프리넥 프레스센터, 스프라세터, 스피드마스터, 스탈접지기 등을 출품한다.

프리넥 프레스센터는 하나의 중앙 콘솔을 통해 색상과 핀맛추조절을 가능하게 하는 워크플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텔리스타트 기능과 월스크린이다. 인텔리스타트는 인쇄가 진행되는 동안 다음 작업을 준비할 수 있게 해 주며, 통합된 월스크린으로 기장이 모든 인쇄공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인쇄용지 전면을 잉크존과 함께 볼 수 있다.

수프라세터CTP 145 / 162 / 190은 큰 규격의 패키징 및 상업인쇄솔루션이 가능하다. 최대속도는 시간당 35장이며, 해상도는 인치당 2540~2400도트다. 최대 6개까지의 판 공급 카세트를 갖출 수 있어 완전 자동으로 6개의 다른 규격의 판까지 600장을 적재할 수 있다. 패키지, 상업인쇄 및 웹 인쇄에 적합하다.

스피드마스터 XL 75는 시간당 1만8000장의 속도로, 위에서 언급한 인텔리스타트를 갖춘 프리넥 프레스센터와 조그휠, 그리고 터치스크린을 포함한 새로운 배지부 콘트롤 패널을 장착하고 있다. 0.03~0.8mm 두께의 다양한 용지가 인쇄가 가능하며, 편면 인쇄기와 양면기로 공급된다.

한편, 올해부터 모든 스피드마스터 인쇄기에는 새롭게 표준화된 고성능의 콘트롤 센터인 프리넥프레스센터가 장착된다.

후가공기기인 스탈접지기 KH 82는 드루파2008에서 처음 소개되는 제품이며, 최대 속도는 시간당 3만 회전으로 향상되었다. 선택한 자동화 수준에 따라 가로 접지 유닛의 설정 시간은 스탈접지기 KH 78에 비해 80%까지 줄어들어 기계의 안정성이 향상됐다. 이에 평균 시간당 1천장을 추가로 생산할 수 있다.

● 김범식 한국하이텔베르그 대표이사

최고의 성능 최고의 가치로 고객 지원할 것

△ 2008 드루파 출품의 의의는 무엇입니까?

하이텔베르그는 프리프레스에서 후가공까지 인쇄 워크플로를 제공하는 유일한 회사로서 많은 혁신적 제품과 아이디어를 고객에게 알리고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최고의 품질과 유연성을 자랑하는 CTP, 한층 업그레이드된 기존 스피드마스터 인쇄기 뿐 아니라, 최고 속도 시간당 1만8000매를 자랑하는 인쇄기와 새로운 규격의 인쇄기로 패키징과 출판 시장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 것입니다. 또한 손지를 90%까지 절감하는 애니칼라 기술도 다시 중점 소개됩니다.

△ 동종 경쟁업체와의 차별화 경영전략 / 마케팅전략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지요.

하이텔베르그의 새로운 모토는 최고의 성능(HEI Performance)과 최고의 가치(HEI Value)입니다. 하이텔베르그는 고객의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대의 가동 시간, 최소의 비용으로 인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더 높은 품질로 한층 높아진 생산성으로 고객의 수익을 보장할 것입니다. 또, 지속적으로 통합 워크플로를 확대 소개할 것입니다. 미래의 확실한 비용 절감과 수익 창출은 워크플로에서 온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 2008 드루파 전시회 이후 국내시장 및 해외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드루파 전시회 이후 다양한 신제품들과 신기술들이 보급될 것입니다. 이로써 고객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



로 기대합니다. 획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높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은 투자한 만큼 보상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미래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인쇄사는 그렇지 않은 업체들의 격차는 점점 더 커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이텔베르그는 지속적으로 국내 고객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이를 통해 고객의 경쟁력이 향상되어 치열한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입니다. 최고의 제품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워크플로가 확대 보급되도록 하여 고객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계획하고 하이텔베르그 솔루션이 고객 현장에서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후지필름

XML시연 · 럭셀 V8 CTP 등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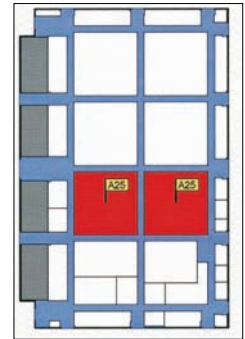
- 레이저 성능 향상에 따라 업그레이드 용이
- 멀티레이저의 높은 망점재현

후지필름은 드루파2008에서 ‘DIGITAL POWER AT YOUR CONTROL’이라는 주제로 기존에서 더욱 발전된 럭셀 V-8 CTP와 함께 우수한 품질을 갖춘 다양한 소모재를 함께 전시할 예정이다. 또한 획기적인 친 사용자 환경의 워크플로 XMF의 다양한 시연과 후지필름 세리콜 등에서 디지털 프린팅과 관련된 앞선 기술과 어떤 인쇄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화학용품 종류를 선보인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 주목되는 분야는 차세대 DVD 기술에서 가져온 바이올렛 레이저를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기술 진화가 기대되는 럭셀 HD CTP 시리즈와 NEWS CTP 시리즈이다.

대표 모델인 럭셀 V-8 CTP는 레이저 성능의 향상에 따라 업그레이드가 용이하며, 높은 품질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제품이다. 럭셀 V-8 CTP는 후지필름의 고유 특허 기술인 멀티레이저의 높은 망

후지필름 부스
HALL 8B, STAND A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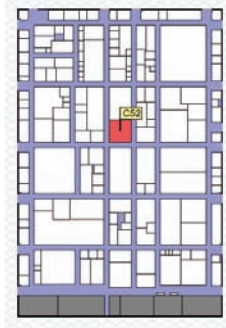
점 재현능력으로 결과물의 높은 만족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작업 편리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측면에서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제품이다.

또한 후지필름 부스의 와이드 포맷 잉크젯 존 코너에서 후지필름 세리콜의 와이드 포맷 UV 잉크젯 평판 프린터들을 출품 시연한다. 특히 성도/솔루인 국내 독점 공급하는 어큐티(Acuity)프린터는 적은 투자 비용, 사진 이미지 수준의 품질 구현, UV 잉크를 사용하는 친환경 제품이다. 어큐티(Acuity)는 48mm 두께 미만의 경질, 연질의 다양한 소재를 수용하며, 프린트 사이즈는 2.5m X 1.25m이며, 친환경 UV 경화 잉크를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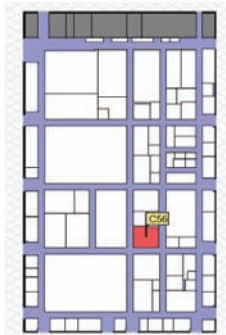
그리고 후지필름은 이번 전시회에서 상업 인쇄사를 위한 원 프로모션(One Promotion)이라는 아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할 예정이다.

후지필름의 부스는 HALL 8B, STAND A25이다.

반손잉크 부스
HALL 3, STAND 3C52.



ECRM 부스
Hall 9, STAND C61.



자연의 색 자랑하는 반손잉크

13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네덜란드의 반손잉크는 'Natural Colours of Quickson' 라는 슬로건 처럼 제품마다 최적화된 색상연출과 친환경적인 품질을 자랑하는 오프셋 잉크인 Quickson을 선보인다. 기존의 Vs-Line을 더욱 업그레이드 한 반손 잉크의 새로운 제품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HS(120pph)를 마코 뉴스매틱스 HS Plus(180PPH)로 업그레이드하여 출시한다. 워크플로우 분야로서는 할리퀸 립 8.0을 기반으로 한 PS 및 PDF 파일 처리 및 강력한 임포지션 및 다양한 디지털 프루빙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중소 인쇄소 환경에 최적화된 합리적이고 심플한 디지털 프리프레스 워크플로 WORKMATE V3.0 출시할 예정이다.

ECRM, Competing by design

ECRM은 기존의 마코시리즈를 더 업그레이드 하여, 레이저가 120mW로 강력해짐으로 무현상 판재까지 (PRO-V & Azura V)사용가능 한 제품을 선보인다. 또한 DPX 4 Eco (경인쇄용 폴리에스테르 CTP)의 현상액 소모량을 혁신적으로 감소(50%)시켜 경인쇄사에 친환경 작업환경 제공할 수 있는 성과, 신문사용 마코 뉴스매틱스

만로랜드

로랜드700 하이프린트 등 출품



● 다양한 운전 솔루션을 선보이는 만로랜드

만로랜드는 이번 드루파에서 'WE ARE PRINT' 라는 모토아래 로랜드200, 로랜드500, 로랜드700 하이프린트, 다이렉트 드라이브, 로랜드900 XXL, 인라인Foil, QuickChange 등을 선보인다.

운전인쇄기 부문에서는 Applied Innovations라는 컨셉 아래 다양한 운전 솔루션이 전시된다. 물론 인쇄기 성능을 배가시키는 만로랜드 프린트서비스, 프린트컴, 프린트넷, 프린트어드바이스 브랜드도 선보인다.

만로랜드 관계자는 "이번 드루파 2008을 통해 기대하는 방향은 만로랜드 부스가 인쇄업계에서 종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현상이 되는 것이며, 아울러 만로랜드를 새로운 시대에 들어서게 할 획기적인 변화도 준비되고 있다. 만로랜드 고객들이 놀란 만한 새로운 변화를 이번 드루파 2008에서 선보이기로 결정하고 대외비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의 인쇄산업은 많은 어려움과 도전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충분히 잠재력 있는 산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 만로랜드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인

쇄산업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만로랜드는 드루파 2004에서 성공적인 전시를 한 것에 힘입어 이번 드루파 2008에서도 최고의 인쇄기를 효과적으로 선보일 수 있는 부스 디자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드루파 2008을 방문할 예정인 한국 고객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인쇄산업이 다시 급격한 방향 전환을 해야 하는 시기라는 것을 인식할 것이다. 또한 만로랜드의 부스의 방문을 통해 더욱 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받아 상업적 실행 가능한 응용 제품을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 만로랜드는 인쇄사들의 사업 전략 및 창의성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만로랜드 부스 Hall 7 D28

